

# 새벽녘의 총소리

1980년 5월 27일 03:30. 작전개시  
04:10. 도청에 투입  
04:30. 광주공원 7공수 투입  
04:40. 전일빌딩 11공수 투입  
04:53. 도청에서 폭도들과 치열한 교전  
04:55. 도청 완전 점령  
- 계엄군이 수도군단 상황실로 타전한 「광주상황보고서」 -





새벽 3시 30분, 도청의 인근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도청을 향하여 집을 뛰쳐나온 젊은이들이 계엄군들의 포위망에 걸렸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도청 주위를 맴돌다가 수백명이 체포되고, 달아나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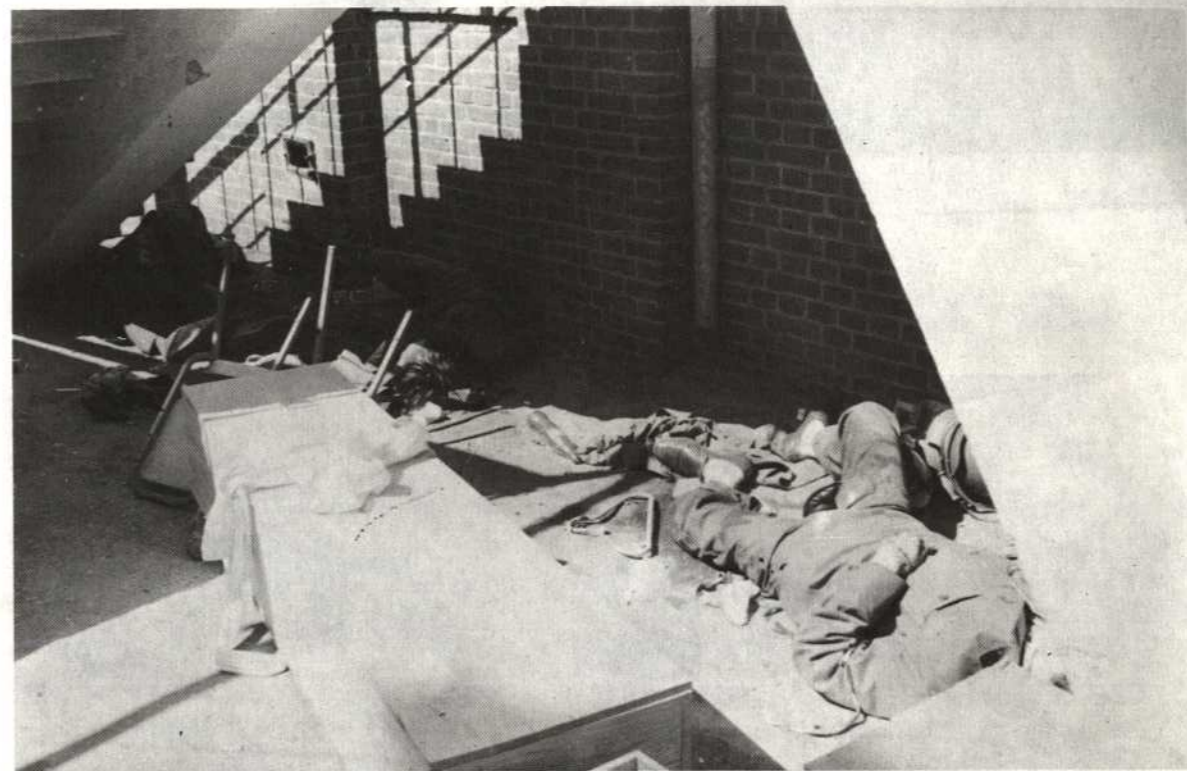
시민군 포로들은 머리가 터져 피투성이가 되거나 안경이 깨어지기도 하였다. 공수대원들은 시민군 포로의 등에다 「극렬」 「실탄 10발」 「권총소지」등 상부에서 지시받은 분류기준에 의해 매직펜으로 휘갈겼다.





계엄군은 도청과 인근의 마지막 시민군을 모조리 체포하여 도청 앞에 무릎을 꿇어 앉혀 도열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도청 방황자」 「총기 소지자」 「특수 폭도」로 나누어 입고 있는 셔츠에 붉은 매직으로 표기하였다. 「특수 폭도」를 가장 먼저 차에 싣고 차례차례 군부대로 이송하였다. 시민군 생존자들은 묶인채 트럭에 실려가면서 어둠 속에서 쓰러져 가던 동료들의 최후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대들 꽃다운 혼,  
 아침이슬과 함께  
 밝은 하늘로 증발되어  
 한가닥 햇살로 우리를 비춘다  
 그대들은  
 다시 이슬비로 내리고  
 때로는 폭풍우 소나기로  
 우리 몸을 뜨겁게 적신다.





그대들 고운비로 다시 내려  
우리 가냘픈 뿌리를 적시면  
빨간 꽃망울을 터뜨리고  
그 속에 고여 있다. 그대는  
피빛으로 고여 어둠을 천천히 불사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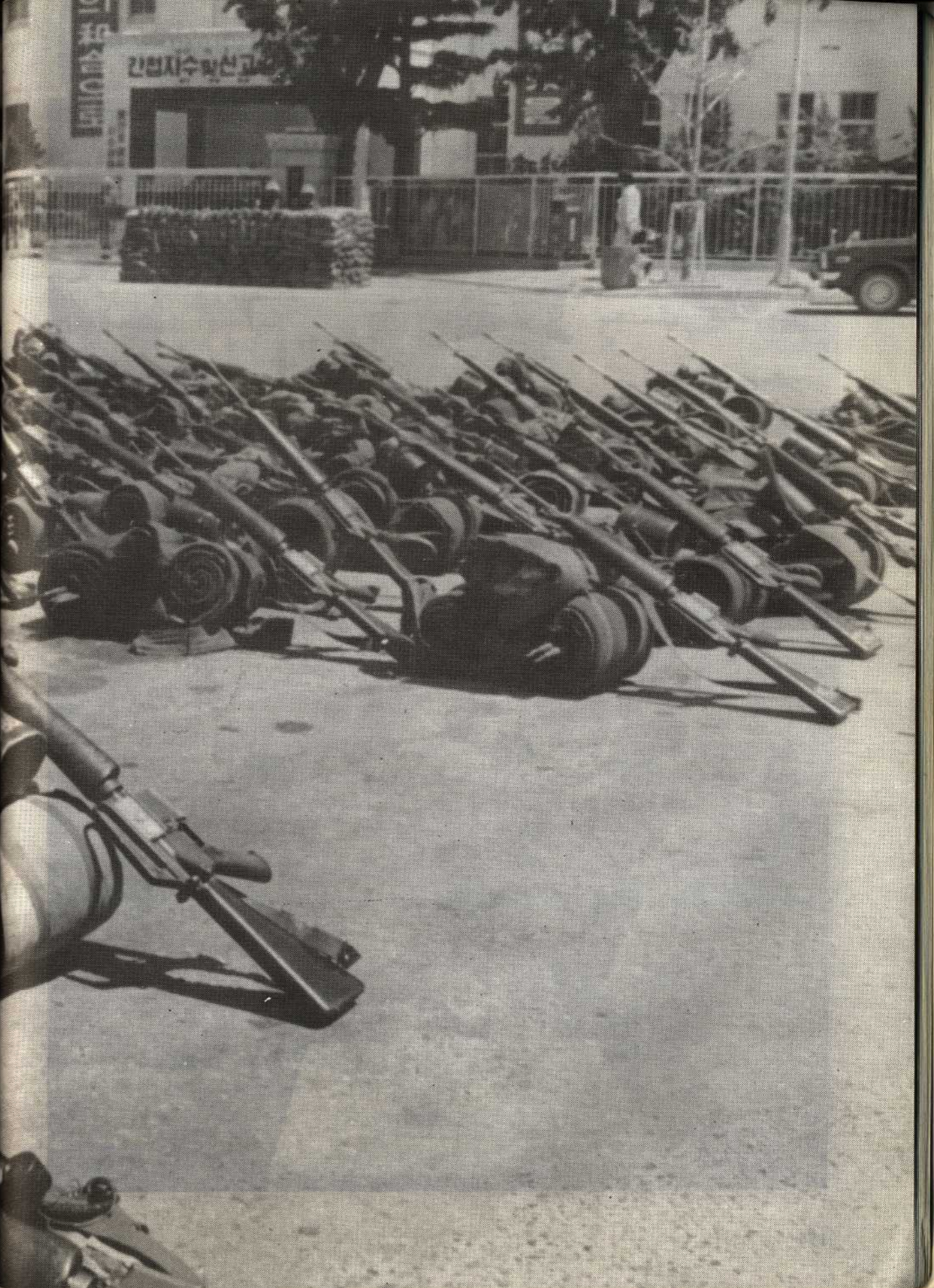
엇그제만 하더라도 인산인해를 이루어 민주화를 외치던 도청 앞 광장은 계엄군의 발걸음만이 부산할 뿐이다. 도로의 핏자국도, 학살의 흔적도 그 피비린내를 지우기 위해 소독차가 동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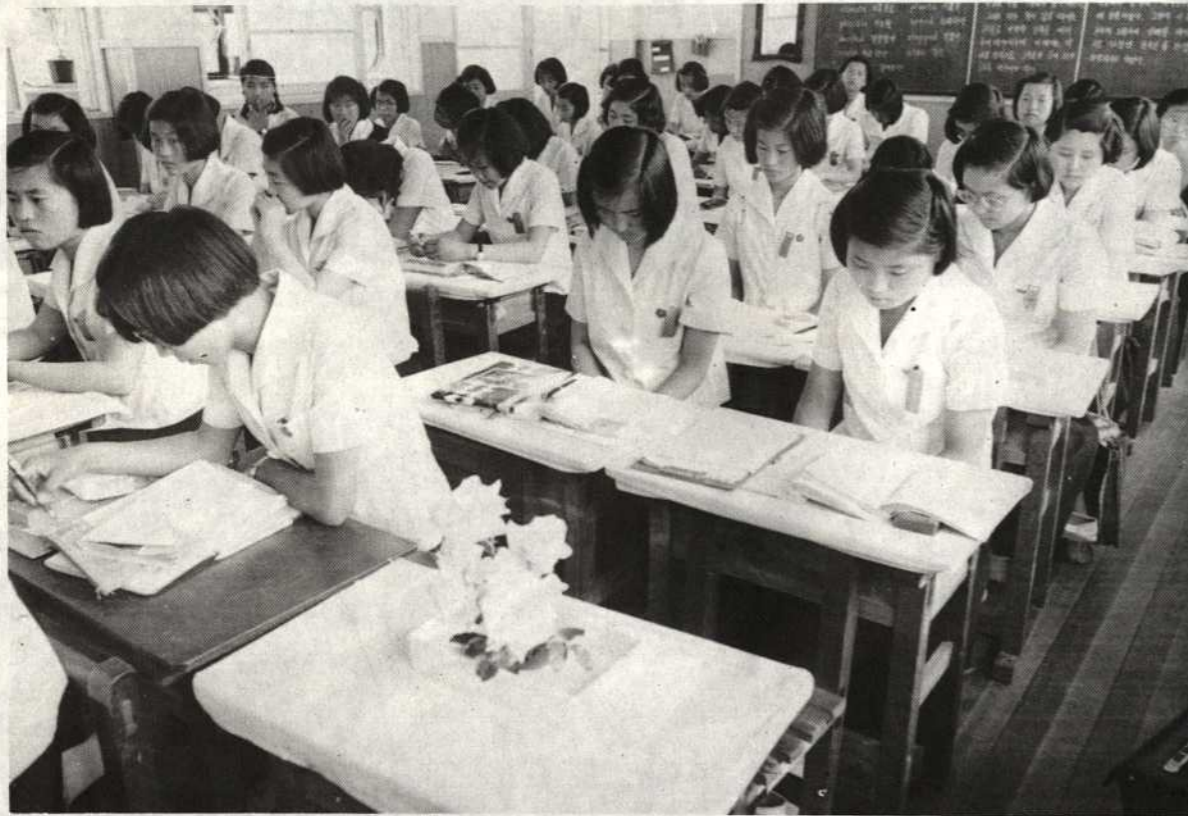






조국의 민주화를 외쳤던 스피커가 고개를 떨구고  
 시민들의 우렁찬 함성과 노래소리 대신에 탱크와  
 장갑차의 요란한 엔진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진동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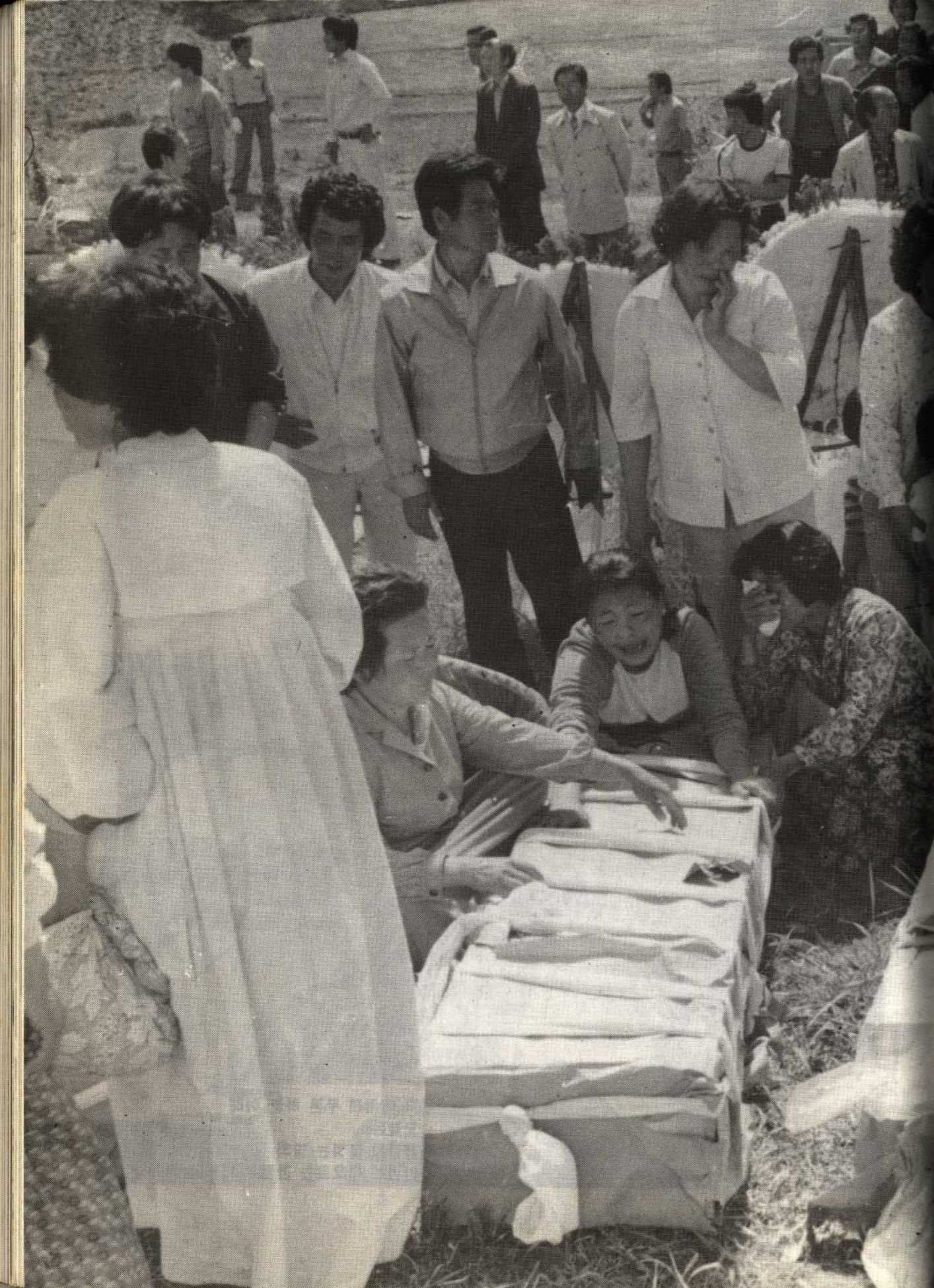




돌아오는구나  
 못 다한 사랑 못 다한 꿈을 안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그대들 다시 돌아오는구나  
 끈질긴 잡초뿌리로 우거지는구나



저 미치게 푸른 하늘 아래  
오늘은,  
잠들지 못하는 땅의  
찬란히 타오르는 한줄기 너울이 되거라





누가 네 상복을 입어주랴?

5월의 애닦은

흔들이여,

올해도 금남로 가로수는

파릇하게 짙어가고

네가 흘린 핏자욱은

아스팔트 깊숙히

젖어있다.

아직 건히지 않은 구름

쌓여있는 한(恨)

너를 그리는 광주의 하늘은 오늘 비를 내리고 있다.

오늘은

네 상복(喪服)을 입어주마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잘 가라는 전송도 없이

맨발로 질질 끌려 무참히 떠난

네 상복을 입어주마

몽둥이로, 총칼로

깨어진 머리를

하늘로 향한 채

조용히 눈감고 길바닥에 누워있던

너의 모습

아-아 애통한 그날의 회오리여

누가 너를 그리했느냐?

누가 너를 그리도 모질게 하였더냐?

아무말 없는 너,

너의 아픈 침묵은

우리 모두를 때린다.

오호라

정의의 무력함이며, 사랑의 무력함이며

욕망의 횡포여……

망령의 손길은

너의 무덤까지 파 헤치고

호곡하는 우리의

목덜미를 조이고 있다.

오월이여

오월이여

오월에 떨어진 꽃들이여

오늘 우리는

너의 영전에

향을 피워

꽃다운 네 청춘을 앗아간

망령을 휘이 휘이

쫓고,

조국의 이름으로 곡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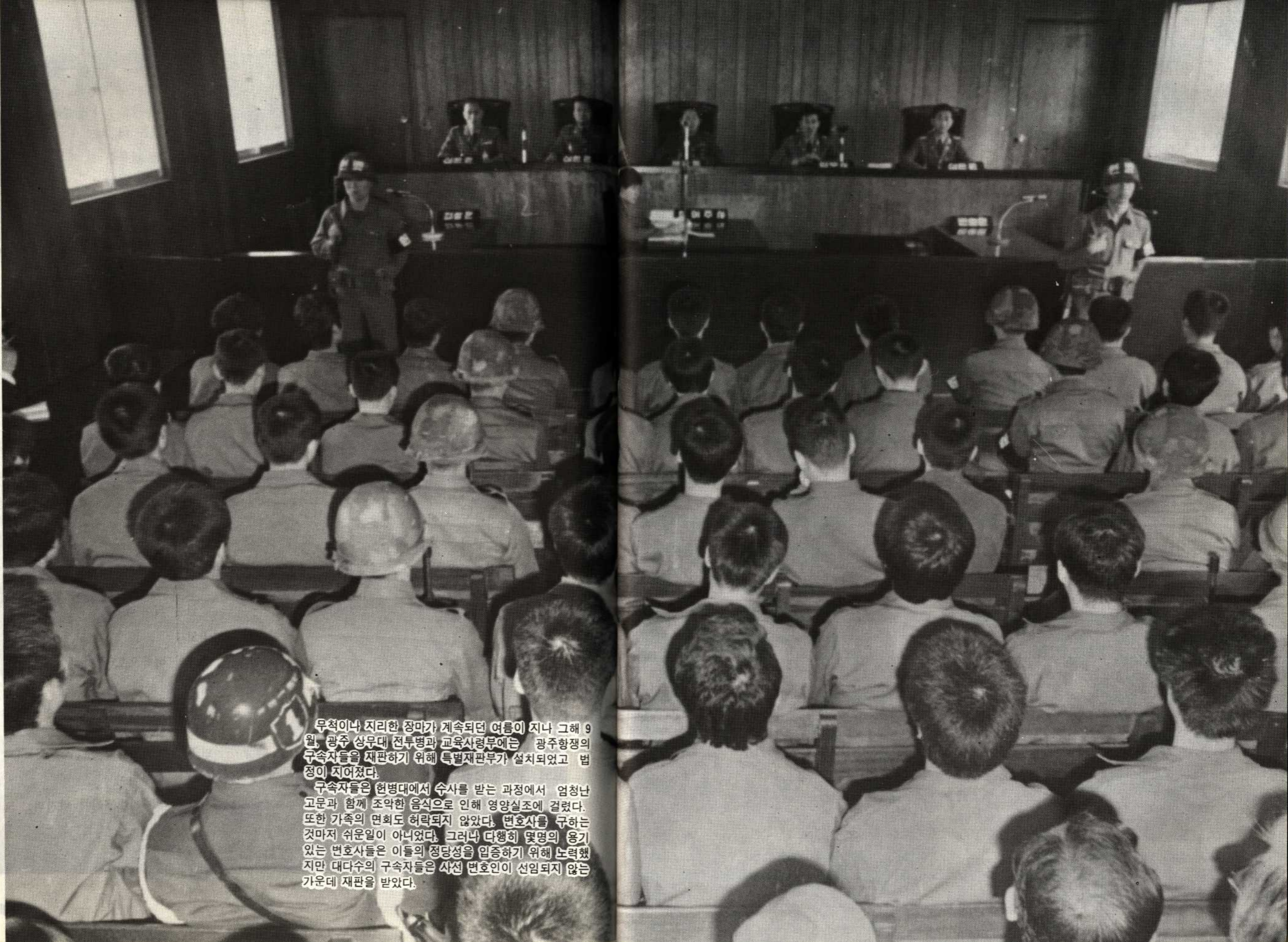
네 혼을 달래노니

네 뜻 기리

민족의 얼되어

5월의 향기되어

누리에 퍼지라. 누리에 퍼지라.



무척이나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던 여름이 지나 그해 9월, 광주 상무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에는 광주항쟁의 구속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었고 법정이 지어졌다.

구속자들은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문과 함께 조악한 음식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렸다. 또한 가족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변호사를 구하는 것마저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행히 몇명의 용기 있는 변호사들은 이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다수의 구속자들은 사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광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싸웠던 기동타격대 대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가 있던 날, 재판장의 입장과 함께 누군가의 선창에 의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룩...」 애국가가 힘차게 불려졌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또한 번 조국에 대한 철저한 애정을 느꼈다.

그렇다. 조국은 소수 정치군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고향인 것이다!





가족들은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방청권을 받아 군부대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입장하였다. 오랜만에 멀리서 대하는 혈육의 모습에 또한번 아파야 했다. 군사재판은 광주항쟁 관련자중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오열하는 가족들. 구속자 가족들은 광주정신을 유지시킨 투사들이었다.



## 광주사태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주장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이었던 5.18 광주사태가 발생한지 한 해가 되었다. 광주사태로 인하여 선량한 학생, 시민들이 흘린 무고한 피와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을 깊이 애도하며 아직도 옥중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는 김성용 신부를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형제적 유대감을 갖는다.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루카 8,17)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은 사제적 양심과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사도 4,20).

5.18 광주사태는 불순분자의 책동을 받아 일어난 폭동이나 내란이 아니다. 이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폭력에 항거하여 일어난 80만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민중의거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서 진리와 정의의 열망은 인간의 양심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어떠한 폭력에 의해서도 말살되거나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표현임을 믿는다.

또한 더 큰 유혈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당국의 요청과 양심의 부름에 따라 수습에 나선 김성용 신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에게 내란 주요임무 종사라는 사태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8,33)는 성서의 말씀처럼 사태의 과정과 그 진실이 밝혀짐으로써만이 민족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회, 불신과 거짓의 명예를 매지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 사제단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자유와 평화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장한다.

- 광주사태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 광주사태로 인하여 구속중인 김성용 신부와 다른 모든 사람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 광주사태로 말미암은 사망자, 부상자, 실직자 및 제적된 학생들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981년 5월 9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사태 2주기를 맞아 광주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은 광주사태 2주기를 맞아 희생된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며 유가족 및 구속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한맺힌 마음에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며, 민족적 화해와 정의로운 민족의 앞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광주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힐 것과 학생들의 복학, 시민들의 복직과 복권, 부상자와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됨으로써만이 민족적 비극이요 시련이었던 광주사태가 치유되고 진정한 민족 화합과 온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민족이 입은 상처는 또 다른 민족적 불행의 낚시줄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을 우려해 왔다.

최근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에 이어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가 구속된 사건은 기실 그뿌리가 광주사태에 있으며, 그 해결의 실마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관계 언론을 동원하여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여 교회와 교회내 제 단체들을 음해하고 국민적 판단을 오도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양심을 속이려 하였다. 이것은 바로 광주사태를 은폐하고 왜곡한 책임전가가 당연한 관행으로서 정착하고 있는 증거로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대형 참화, 참살 사건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이 천시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광주사태의 망령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경제생활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장 여인 사건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 아래 도덕성을 결한 황금만능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로서 이 또한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는 암초로서 작용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광주사태 2주기를 맞아 하느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박아 주신 자유와 진실, 정의와 사랑은 어떠한 권세에 의해서도 말살될 수 없으며, 이의 실현만이 민족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광주사태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그 어느 누구도 억압받거나 권력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지 않고 인간 존엄성을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룩해 가기를 염원하며 다시한번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진실을 바탕으로 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광주사태의 진상과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라.
- 진정한 민족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 광주사태로 구속된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천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광주사태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모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
-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 종식되기 위해 광주사태로 인해 퇴교 당한 학생의 복학과 시민들을 복직 및 복권시켜라.
-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과 최기식 신부 구속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재판절차를 공개하라.

1982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사태 3주기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는 민족적 비극이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총칼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이 잔혹하게 살상, 유린된 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던 광주사태 3주기를 맞고있다.

먼저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하며, 부상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한맺힌 마음에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빌다.

우리는 광주사태 3주기를 맞아 하느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박아 주신 자유와 진실, 정의와 사랑은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나 여하한 권세에 의해서도 말살될 수 없으며, 이의 실현만이 민족의 밝은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광주사태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다시는 이같은 민족적 비극이 영원히 없기를 바란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사제단은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그 책임소재를 밝힐 것과 시민들의 복직과 복권, 학생들의 복학, 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과 치료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주어짐으로써만이 진실을 바탕으로 한 민족적 화해와 화합이 있을 수 있음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광주사태의 역사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채 은폐, 왜곡됨으로써 최기식 신부의 부당한 구속과 판결, 박관현군의 죽음, 계속되는 학생소요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음성적인 탄압과 정보사찰이 가중됨으로써 시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고 또 다른 불행의 불씨로 남게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족적 비극이요 시련이었던 광주사태의 진정한 치유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화해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죄의 뜻으로 민족앞에 스스로의 거취를 분명히 할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불신사조와 기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책임정치가 구현되리라 믿는다. 또한 바른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행동하는 권리와 알고 알릴 권리가 보장되는 참다운 언론자유가 있을 때 광주사태 희생자들이 함께 지키고 함께 나아가고자 염원했던 자유 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피게 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루고자 했던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민족사의 비극이요 시련이었던 광주사태의 역사적 의의가 민족사에 수용되고, 국민 모두가 이 역사적 진실 앞에 속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보장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사회가 건설되리라 확신한다.

1983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의거 4주기를 맞이하여

5.18 광주의거 4주기를 맞아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은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II고린 5,18)”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광주교구 사제단은 광주의거의 모든 희생자에게 명복을 빈다. 또한 모든 유가족, 부상자와 그밖에 여러가지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그들과 고통에 깊은 형제적 연대감을 갖는다.

5.18 광주의거 4주기에 즈음하여 이 민족적 시련에서 역사적 교훈을 진정으로 살림으로써 자유와 진실,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민족적 희망의 표지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의거 이후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불의한 현실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 진정한 민족적 화해와 일치를 향한 발걸음에 밀거름이 되고자 한다.

화해란 저질러진 사실을 묵인하는 것이거나, 없었던 것으로 돌리자는 강자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교황 성하의 광주 방문 이후 제도언론이 무책임하게 교황 성하의 발언을 왜곡, 곡해하고 있는 것에 심히 우려한다. 교황 성하께서는 광주 행사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하느님 안에 「화해와 일치」를 말씀하셨고 또한 불화와 증오의 한가운데서 이를 실천할 것을 권고하셨다.

본 교구 사제단이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해 온 바와 같이 광주의거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물어질 때 진실을 바탕으로 한 민족적 화해와 일치가 있을 수 있음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 의거의 희생자들인 시민들의 복권과 복직,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치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주어지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감시나 탄압이 종식될 때 기본권이 중시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회, 불신과 거짓을 내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광주의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와 연루된 모든 사건을 공정히 처리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
2. 민족적 참회의 표지로 광주의거 희생자들의 망월동 묘소를 성역화 하라.
3.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고, 이들의 항구적인 치료대책을 마련하라.
4. 해직교수와 시민들을 즉각 본래의 직장으로 복직시켜라.
5.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제도적 폭력장치로 남용되는 강제징집제도를 철폐하고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1984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의거 5주기를 맞이하여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절규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광주의거 희생자들의 영전에 삼가 애도와 추모의 배례를 드리면서 그들의 뜻을 받들어 이루지 못함에 대하여 자괴를 금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광주시민과 더불어 광주의거의 목격자들이요, 증인들이다. 어언 5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회상하기조차 몸서리쳐지는 그때 그날의 참상의 원인과 그 진상을 밝혀주게 될 역사가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희생자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를 찾을 때까지,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국민의 이름으로 천하에 밝히는 날까지 우리는 증거자적 눈으로 그들의 행적과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국민의 민주 염원과는 반대로 어느 것 하나 민주적 변화가 없고, 민권의 신장이 없이 민의와 민권에 대한 탄압만 그 수법과 양상이 더욱 지능적이고 비 인도적으로 가중되어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온 국민의 민주 염원이 성취되고 광주의거 희생자들의 유지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민주 국민과 뜻을 같이하여 민주회복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모아 제언하는 바이다.

1. 우리는 광주의거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독재 권력의 물리적 폭력 앞에서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국의 민주제단에 선혈을 뿌리며 숨겨간 거룩한 민중봉기임을 밝혀둔다.
1. 우리는 광주의거로 인해 숨겨간 고귀한 넋을 위로하며,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 및 부상자, 구속자 등 광주의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광주의 모든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들이 드리는 절실한 기도에 동참하고자 한다.
1. 우리는 남북 분단에서 오는 민족의 한과 설움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광주의거의 은폐로 인하여 또 다른 한이 생성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탄압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며,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인의 사욕과 자만을 버리고 국가의 권익과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없이 진정한 화해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회개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최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존권 수호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잘못된 집행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마련하신 최고의 법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 위하여 최저 생계비의 보장과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저곡가제도의 철폐와 무분별한 농축산물의 수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배움의 장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그들이 습득한 진리와 젊은 열정에 의해 발산되는 최근의 학원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젊은이들의 주장을 당국과 기성세대에서는 반성과 일신의 계기로 삼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악법인 '언론 기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 자유언론이 보장될 때 이 나라의 민주발전은 더욱 빨라지리라 믿는다.
1. 우리는 광주의거 희생자들에게 올바른 예우와 보상, 그리고 그들의 의로운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발족된 '5·18 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며 이들과 굳은 결속을 통하여 광주의거가 역사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985년 5월 17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의거 6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광주의거 6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도 없이 우리의 조국이 이제 민주화의 분수령은 넘었음을 선언한다. 지난 6년동안 진실을 외면한 거짓의 행렬은 실로 아귀찬 것이었다 할 지라도 우리는 정의가 끝내 불의를 이긴다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않았기에 좌절하지 않았다. 또한 악에서부터 선을 찾으시고, 불의로부터도 정의를 구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절망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6년전 민주화를 외쳤던 광주시민의 합성과 희생제단에 뿌려진 민주영령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조국의 민주화에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강압적인 통치권력이 이 나라를 대립과 갈등, 분열과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민중이 이끄는 민주화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민주화의 튼튼한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우리는 그날의 한을 되새기며 증오만을 키워갈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그 출발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일지라도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의 염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들도 조국의 민주화 대열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자신을 참회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그들을 포용하고자 한다.

이 민족이 광주의거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참다운 교훈을 배워 후손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내일을 넘겨주기 바라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과 의지를 밝힌다.

1. 광주의거로 희생된, 유족 부상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치안당국을 통해 유족, 부상자에게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비인간적 행위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 탄압사례를 우려하며 경찰공무원의 감정적 폭력행사 등에서 현정권의 폭력성을 다시금 규탄한다. 또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고문과 폭력은 반드시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3. 우리는 80년 광주의거 당시 밝혀지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미 주장이 거론되었다고 본다. 더구나 미국 국무장관이 저지른 무례는 오늘 우리 국민에게까지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음을 확인하며 미국의 반성을 촉구한다.
4. 우리는 한 집권당의 회의 석상에서 "80년 5월처럼 강경조치" 운운하는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분노하며 민정당에 충고한다. 권력이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임을 알아 사욕을 버리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5. 우리는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 조국에 대한 애정과 충정을 표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진리에 의거한 학생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 수렴되어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
6. 우리는 교육현장에서마저 비인간적, 획일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최근 대학교 및 중등교사들의 교육민주화 선언에 마음을 함께 한다. 또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탄압 조치들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7.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원하는 집단끼리 분열의 위기에 있음을 시인하고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민주화란 특정집단만이 주도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므로 노동자, 농민, 학생, 재야 등 이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하여 겸허한 자세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몸바치는 복음적 소명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에 함께 할 것이다.

1986년 5월 16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의거 7주기를 맞이하여

"하느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만한 때에 너의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II 고린 6,2)

우리는 광주의거 7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마침내 한 시대의 종말을 가름할 결단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시기는 은총의 때이며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민주화를 성취하여 밝은 미래를 약속받느냐 아니면 또다시 전제시대의 어두움에 묻히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7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권에게 광주 민주화살의 진상과 그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과 집권시와 집권후에 자행한 모든 죄과를 속죄하는 뜻으로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비록 그 출발부터 정통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현 정권이지만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염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민족 화합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권력의 장악과 그 유지에 혈안이 된 현 정권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최소한의 정치 도의마저 짓밟아 버리는 이른바 「4·13 폭거」를 저질러 국민들에게 허탈과 실망, 좌절과 배신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독재권력의 철면피한 만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제단은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권력을 징벌하시고 억압된 민중의 인간성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이 백성의 해방을 호소하는 제 1차 단식기도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독재권력에 의해 학대받는 이 땅의 민중을 섬기라고 파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온갖 불의와 학정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세상의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으로 채우고자 하는 작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화와 민주제 개헌 주장, 또는 그 운동에 대하여 강권과 형벌로 엄단한다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단식기도마저 엄단한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공동선과 민의에 입각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노력도, 그런 의지도 없는 폭력집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체제를 영속화하려는 독재권력의 양심을 향해 참회를 촉구하는 호소를 지속할 것이지만 이땅에 진정한 민주화와 진실한 정의의 확립은 집권자들의 선심이나,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인들의 양식이 파탄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민주화를 향한 단합된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와 결의를 밝힙니다.

1. 우리는 이승만 독재와 유신독재를 거쳐 오늘의 일부 정치 군인들의 독재에 이르기까지 독재 권력에 의해 빼앗긴 국민의 정부를 선택할 권리 회복을 위해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기도와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현 정권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민적 합의를 말살시킨 4.13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선거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천명하며, 민주화를 위한 개헌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함을 밝힌다.

- 우리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용공조작과 국가 보안법, 집시법 등의 남용과 오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양심수 및 정치범의 무조건 석방과 민주인사들의 복권이 조건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화의 선행 여건을 조성할 것을 현 집권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현 정권의 유일한 통치수단이 되고 있는 고문과 폭력을 규탄하며 이같은 비인간적인 만행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 우리는 민주화의 대전제인 언론의 자유회복을 위해 언론기본법의 전면 폐지와 보도지침의 철폐를 촉구한다. 또한 일선 기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마땅히 응징되어야 하듯이 국민에 대한 제도화된 언론의 폭력 역시 불식되어야 함을 밝힌다. 아울러 KBS·TV 시청료 거부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재천명 한다.
- 우리는 서울올림픽이 국민화합의 바탕 위에서 치루어지는 축제가 되어야지, 억압과 탄압 속에서 열릴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순수한 세계인의 일시적 체육행사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에 의해 거부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 우리는 우리의 군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최소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5.18 이후 거세어지고 있는 반미 양상을 보면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민족자본과 보편적 인류애에 입각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를 핵무기의 불모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 수입개방의 강요와 대미수출에 대한 일련의 조치, 한미간에 체결된 몇몇 불공정한 협약들은 인류애와 국제협조의 상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회의와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이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제기는 마땅하다고 믿으며, 앞으로 진행될 정치일정이 우리 민족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 정책이 이 땅의 민주화 노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의거 8주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떠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이사야 62,1)

광주의거 8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독재권력의 강압에 의해 거짓폭력의 무덤 속에 묻혀져야 했던 광주의 진실이 마침내 국민의 성숙한 민주역량에 의해 역사의 전면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들이 참회하고 사죄하며 광주시민들은 그 행위보다는 인간을 용서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이 민족적 비극이 하루 빨리 치유되고 상처가 아물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였고 이 나라를 극심한 대립과 갈등, 분열과 투쟁으로 몰아갔을 뿐이었다.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다.”(루가 8, 17)

광주는 의로써 일어섰고 의로써 고난을 당했기에 우리는 독재정권이 저질러 왔던 온갖 자학파 광기어린 폭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와 참된 정의의 확립은 권력자들의 선심이나 외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굳은 의지와 단합된 노력에 의해 쟁취되는 것임을 굳게 믿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 민주영령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민주화를 자신의 힘으로 뿌리내리게 한 우리 국민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보내며, 아울러 우리 모두를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위해 투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그러나 이 부활의 여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광주대교구 사제단은 광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민주화와 인간화를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광주의거가 이 민족의 정서 안에 더욱 깊숙히 뿌리 내리고 이 민족적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와 다짐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는 지난 4.26 총선이 금권과 폭력 등 온갖 부정과 위협 속에서도 민주화 의지를 관철시킨 이 나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현 정권이 지난 4월 1일 발표한 이른바 '광주사태 치유대책'에 대한 엄숙한 심판이었음을 확인한다.
- 우리는 광주문제의 해결 방안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색출에 있다고 믿으며, 제13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권을 발동, 광주의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광주의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 우리는 서울올림픽이 범 국민적 축제가 되기 위해 북한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인권과 민주 생존권의 보장으로 온 국민의 축복속에서 치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우리는 통일논의가 집권 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진지하게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는 슬기를 모아 민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1988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광주민중항쟁 9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광주민중항쟁 9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꺼안은 채 절규하고 있는 광주시민과 더불어,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현 정권을 “광주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재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민중항쟁은 권력탈취에 혈안이 되었던 일부 정치군인들의 잔학한 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의로운 투쟁이요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광주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족의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이땅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지속시키려는 미국과 독재권력의 정체를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광주민중항쟁은 국회청문회와 일부 언론을 통해 단편적인 모습들이 비춰졌을 뿐 그 진상이 공식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정치권에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외면한 채 금전적 보상의 차원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음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광주를 분노케 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 비극의 근원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가로막는 남북분단에 있으며, 이는 하느님의 뜻에 반하여 역사에서 인간이 저지른 악의 상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사람들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라고 기원하는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의 뜻에 따라 통일은 달성되어야 할 민족의 시대적 과제를 다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비극이요 악의 상태인 분단의 벽을 헐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데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상태를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그것을 고착시키려는 현 정권과 척결되어야 마땅한 5공 잔재세력들은 통일운동의 다변화 현상을 오히려 강압통치의 호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안합수부라는 탈법적 탄압기구를 만들어 민주와 통일을 추구하는 양심세력에 대한 무차별 검거선봉을 일으켰고, 마침내는 조선대 ‘이철규’군의 죽음까지 몰고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권에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진정한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현 정권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두환」 전 정권이 남긴 역사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에 광주대교구 사제단 일동은 온 국민이 광주민중항쟁의 진정한 의미와 참다운 교훈을 익혀 민족자주화와 분단극복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와 다짐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우리는 광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진정한 참회와 진실된 증언 및 사법적 처리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적 담합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둔다.
2. 우리는 80년대 초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합동수사본부의 재판인 공안합수부를 즉각 해체할 것과 무차별 연행·구속된 양심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민족의 순수한 통일의를 군부의 냉전논리와 정권의 안보논리로 탄압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자유롭고 폭넓은 남북민간교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조선대 ‘이철규’군의 사망원인과 과정에 대한 공정한 수사과 그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힐 것과 80년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1989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오월민중항쟁 10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오월광주민중항쟁 10주기를 맞이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 민족적 비극의 역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산자의 부끄러움을 안고 앞서 가신 5월영령 앞에 서야 하는 현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한결같이 광주의 상처가 한시 바빠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법적 처리 그리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광주시민들은 혹독한 강압통치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로운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호소와 투쟁은 헛되지 않아 양심적인 언론 종사자들의 노력과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정권측에 사로잡혔던 신군부 세력의 음모와 잔혹했던 광주학살의 실제적 진상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고했던 5공의 권력자와 함께 5월의 광주를 피로 몰들었던 신군부의 핵심들은 여전히 6공의 중심세력으로 남아 광주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주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현 정권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광주학살의 책임자와 그 하수인들을 역사의 뒷면에 숨겨둔 채 마치 생색이라도 내듯이 몇 푼의 금전적 보상만으로 오월항쟁의 정신을 희석시키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두번 죽이려 한다면 이는 5월영령과 역사에 대한 배반이요, 죄악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날 총체적 난국이 초래된 것도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한 반성과 적절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 책임을 국민 전체에게 전가하고, 저항의 목소리를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탄압하는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해 마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은 이미 ‘보통사람’의 정치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권이란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이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공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계속한다면, 이는 곧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와 다짐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광주시민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3.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은 시혜적이거나 조건부가 아니라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민을 기만하며 광주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회피하는 5공 잔재세력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5. 현정권은 ‘총체적 난국’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총선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1990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오월민중항쟁 11주기를 맞아

오월민중항쟁 11주기를 맞는 오늘 이 땅의 현실은 민족적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독재권력의 전횡으로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군의 피살사건과 잇단 젊은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사건이 일어나면서 심대한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수많은 민주열사들과 80년 5월 이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장렬하게 숨겨진 영령들 앞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깊은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1년을 넘어서고 있는 광주의 상처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광주시민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유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광주문제가 종결되었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일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진실과는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오월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희석시키고 광주시민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써 실로 거래와 역사에 대한 배반이요,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정권이 국민들, 특히 피해 당사자들인 광주시민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몇 푼의 금전으로 광주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것은 그들의 원조인 5공 신군부세력들의 반인륜적 만행을 은폐시키고 불의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며 그 기득권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과 약속한 6·29 민주화 조치를 사문화하고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를 취소했으며 최근에는 수서특혜 비리사건, 낙동강 폐물오염사건 등 정경유착으로 인한 엄청난 독직사건을 야기시키고,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악법을 개혁입법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정권이 밀실에서 급조한 거대 여당의 힘으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나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국사를 패권주의에 입각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려는 권위주의적 속성에서 오늘의 이와같은 파국과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폭압적인 탄압은 무수한 국가적인 손실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에 항거하여 분신을 기도한 전남대생 박승희양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과연 누가 이 파행적인 죄악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누가 무죄한 이들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고 불의한 정치권력에 의해서 강요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허무와 좌절의 늪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현 정권은 역사와 민족 앞에 더 이상 범죄치 않기 위해서 민주개혁의 대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며, 심지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소수의 불순집단이나 체제전복 세력으로 매도한다면 결국 더 큰 불행과 재난을 낳을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역사의 심판은 준엄한 것입니다. 결코 거짓이 진실을, 미움이 사랑을, 불의를 정의를, 억압이 자유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즉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요한 1. 5)

## 오월민중항쟁 11주기를 맞아

우리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나가야 할 하느님의 종으로써 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민족의 통일과 민주회복의 그 날을 위해 정의로운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의 요구

-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광주시민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극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반민주적인 악법을 즉각 철폐하라!

- 전투경찰의 불법적인 운영을 중단하고,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며, 백골단을 즉각 해체하라!

-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일하다 옥에 갇힌 모두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1991년 5월 17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오월민중항쟁 12주기를 맞아

오월민중항쟁 12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이 반민주적 폭압정권에 대한 의로운 항거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올해로 12년을 넘어서는 광주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는 명확한 진상규명 및 광주시민과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정부가 오월민중항쟁 피해자들에 대해 기만적인 보상만을 실시해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시작됐던 우리의 현대사는 독재권력에 항거했던 4.19혁명이 5.16 쿠데타에 의해 단절되면서 이땅의 비극적 역사는 계속돼 왔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등장한 6공화국 역시 망국적 3당합당 이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를 취소해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를 가중시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반민주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파렴치한 작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는 그 죄과를 은폐하기 위해 휘두르는 폭력은 그 강도가 더해져 정부수립 후 가장 많은 양심수들과 수천의 해고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번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해 왔지만,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이용한 여당내의 기만적인 경선술책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군부재자 투표부정과 안기부 요원들의 탈법행위등 부정선거의 책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독재자들이 늘 사용해 왔던 정권유지를 위한 수법으로서 이러한 구시대적 작태로는 국민들의 눈을 더 이상 가리울 수 없다는 사실을 현정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지난 해부터 지향해 온 '생명을 보전하는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면서 1980년 5월 군부의 폭력만행이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기인했음을 재확인 합니다. 이러한 풍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폭력과 고문, 낙태와 인신매매, 성폭력 등 각종 악의 행위들을 만연케 하고 있습니다.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세계정세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급변속에서 광주의 정서들이 퇴색해 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독재자들의 술책에 말려들어, 오월 그날, 분연히 떨쳐 일어선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음을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기만적인 보상과는 무관하게 광주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특별히 오월 관련단체의 관계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정권이 민족과 역사 앞에 더 이상 범죄자로 남아 있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민주개혁의 대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역사의 심판은 준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체제를 영속하는 위정자들을 향해 참회를 촉구하는 호소를 지속할 것이지만,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인들의 양식이 파탄에 이른 지금,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에 옮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와 다짐을 밝힙니다.

## 우리의 결의

-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광주시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일하다 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반민주 악법에 의해 해고되거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은 노동자·농민들의 권리는 즉각 회복되어야 한다.
- 정치권력의 시너로 비난받는 군과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1992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오월민중항쟁 13주기를 맞아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고린토 후서 4,8), 오월민중항쟁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상처가 치유됨으로써 민족과 역사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화의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왔다.

우리는 80년 5월의 민중항쟁이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위한 시민학살에 맞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려는 정당한 시민의거였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지난 5월 13일에 발표된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민족적 통한인 오월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과 역사적 과제인 "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긴다는 미온적 자세보다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함으로써만이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참된 화해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들의 진정한 참회가 전제될 때 실현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정권이 진상규명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1. 오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과 국회차원의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군사정권의 의도적인 회피로 그 진실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진상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광주시민들과 민족의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 1. 오월문제의 해결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은 그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분단을 영속화하여 민족의 공동선과 발전을 저해해 왔다. 오월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지역패권주의가 극복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월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우리 시민 모두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의연한 모습을 취하여 민족적 화합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며(디모테오 전서 2,4),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로마서 2, 10) 해 주실 것이다.

1993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5·18광주민중항쟁 14주기를 맞아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지고, 마침내 자기 피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욥기 18,5)

우리는 오월민중항쟁 14주기를 맞는 오늘,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음에 먼저 가신 오월영령들께 또다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한다.

개혁을 표방한 현 정권이 들어선지 1년여가 지났지만 국가와 민족 생존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정부가 취한 UR문제 등의 협상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농촌과 농민형제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군사정권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올바른 개혁을 이룩해 낼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을 꾸준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불행했던 우리 역사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책임성 여부가 정의롭게 밝혀진 예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5.13특별담화를 통한 몇몇 조치는 과거의 정권과는 달리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보여지기도 했지만, 어설픈 보상과 졸속한 기념사업만으로는 결코 5.18문제가 마무리 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5.18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모든 조치들이 결국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5월 12일 시작된 '80년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알려진 전두환, 노태우씨 등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장 접수와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백만인 범국민 고발운동"을 환영한다.

그리고 5.18 기념사업은 그동안 억압당하고 소외됐던 광주시민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일이 거니와 우리 민족의 어두웠던 역사의 한 부분을 조명하여 후손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념사업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 진상이 명확히 밝혀진 후 범국민적 논의속에서 오월항쟁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오월정신을 올바로 계승코자 하는 대다수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일부 관련단체들이 다소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월정신 계승이라는 역사적 대명제 앞에 하나되어 오월 그날의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우리의 견해

- 오월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하고, 악법은 개폐되어야 한다.
- 정부는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94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 5.18광주민중항쟁 15주기를 맞아 광주문제의 역사적 해결을 촉구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8,33)

5.18광주민중항쟁 15주기를 맞는 우리는 5월영령들 앞에서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저항은 정치군인들의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폭압에 대한 의로운 항거였음을 또다시 확인한다.

광주민중항쟁 15주년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는 것이었다. 진상규명을 통한 문제해결만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광주시민들과 더불어 '80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언론의 통제와 군사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홀어져 있는 진실들을 찾아 복원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완벽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의지가 없었던 관계로 한계가 있었다.

우리는 더우기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 정권마저도 진실을 밝히기 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채 시혜적인 조치들만 취함으로써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지난 해 12.12 사태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결과는 공소시효를 앞둔 '5.18'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전,현직 대통령과 검찰 등 정부의 관계 부처,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우리가 모아 온 관련 자료를 보내 한결같이 진상규명과 학살자들의 기소를 촉구했었다.

오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광주문제의 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들의 처벌을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 15년전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최규하씨도 이제는 용기를 갖고 증언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한편,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난무하는 구호만큼이나 패륜사건과 인명을 경시한 대형 사건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군사정권을 무색케 할 정도로 수많은 양심수들과 장기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구호속에 노동자·농민과 도시빈민 등 소외받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끝내는 장애인 노점상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특히 민족분단 50년째를 맞는 우리는 광주학살의 가해자들이나 그동안 불의한 이들과 야합하거나 협조해 왔던 사람들 모두가 참회를 통한 민족화해의 큰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우리 사회의 고질화 된 정치의 실종은 국민들의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우리는 '5월'이 외면당하고 있음을 올바르게 이해해 그동안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서 싸워 온 시민, 청년학생들과 슬픔과 분노가 더욱 클 유족들과 5.18 관련단체 회원 모두 역시 지난 날의 정의롭고 의연했던 모습을 견지해 전 국민적인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의 양식이 파탄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민주화를 향해 단합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임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 금번 4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불의한 권력을 징벌하시고 억압된 민중의 인간성을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체제를 영속하려는 자들의 양심을 향해 지속적으로 참회를 촉구하고,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정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의로써 일어났고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왔기에 광주는 지난 15년의 세월속에서도 군사독재정권들이 저지른 온갖 폭압과 기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 배상, 그리고 기념사업 등 그동안 누누히 밝혀 온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 우리의 견해

- 현 정권은 광주학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기소하라.
- 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 현 정권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 현 정치권은 지역분할을 조장하는 정치행태를 중단하라.

1995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오일 光卍

미워하지 말자  
그러나 절대로 잊지말자.

## 광주민중항쟁사진자료집 오일 光卍

1987년 9월 초판·발행  
1988년 5월 2판·발행  
1990년 5월 3판·발행  
1994년 4월 4판·발행  
1995년 5월 5판·발행

자료모음, 편집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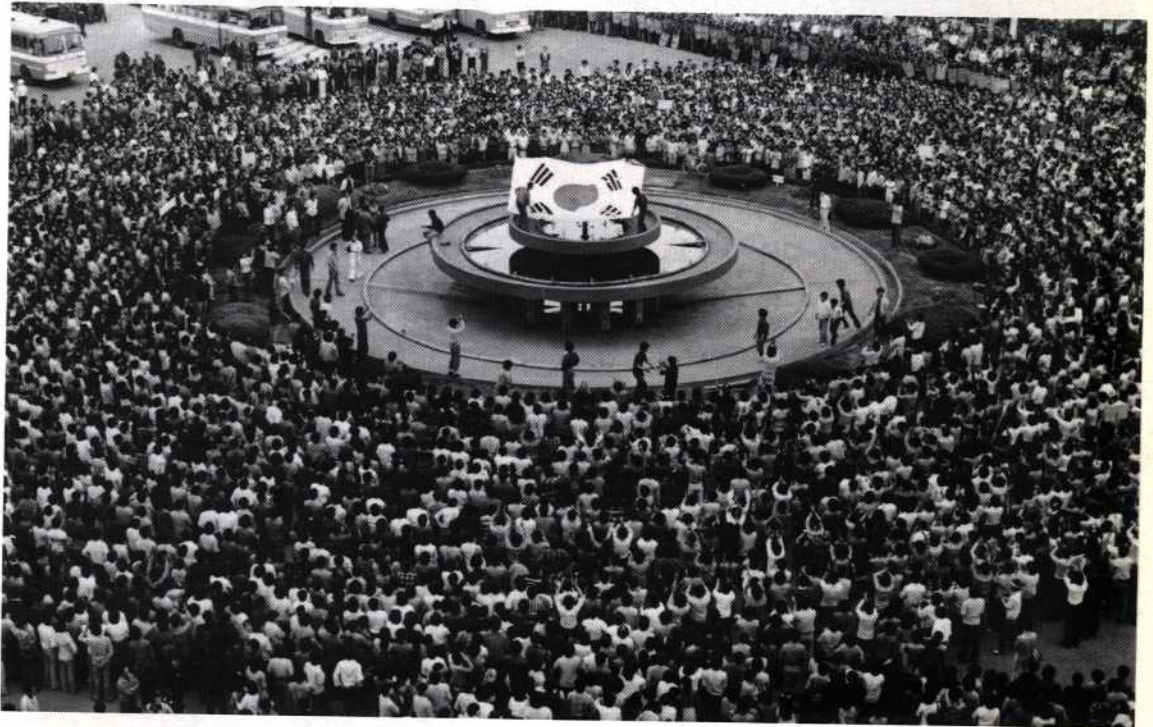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608호  
☎(062) 227-6008, FAX. 225-1306

값 8,000원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The May 18th Kwangju Uprising  
and  
Mangwol Cemetery

# Kwangju: Mecca of Democracy



*The torch of democracy is still burning:  
people surrounding the fountain in front  
of the Provincial Capital Building.*

**Citizens' Solidarity of KWANGJU**



*Kindergarten Children at Mangwol-dong Cemetery: The lofty ideal of the Kwangju Uprising is inherited to the younger generation*

## 1. Mecca of Democracy

In May of 1980, the torch of democracy was glaring in the peaceful city of Kwangju,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en days, from May 18th to the 27th, the citizens of Kwangju protected the torch of democracy at the cost of their lives. Although the suffering of the city Kwangju still continues, her solemn struggle for the democracy has moved the hearts of people across the world who have truly loved peace and freedom. Kwangju has been praised as one of the meccas of democracy, along with the Paris Commune and Auschwitz. It attracts a large number of visitors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in remembrance of the sacrificed lives. People will remember Kwangju forever as a torch for freedom, peace, and equality which are universal virtues of mankind.

## 2. Reservoir of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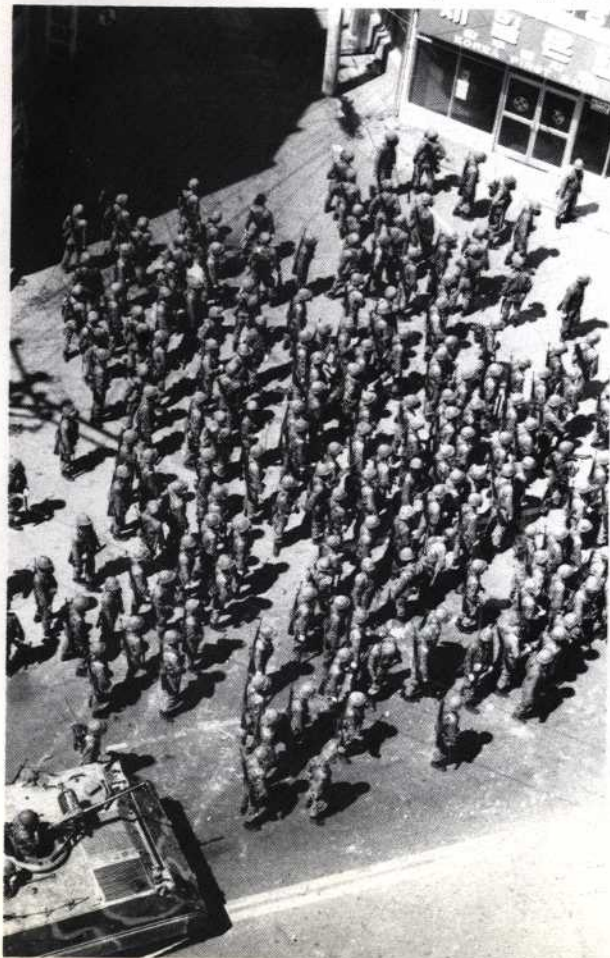
The military dictatorship that lasted for 19 years came to an end with the assassination of Park Chong-hee by one of his subordinates who headed the KCIA. Under the long military dictatorship, Korean society suffered from growing structural contradictions such as the increasing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wealthy elite and the general populous and the corruption of those in power. The demands for the democratic change sprang up around the country. Laborers in Pusan and Masan staged violent demonstrations on October 16th, 1979 ultimately triggering conflicts within the ruling dictatorship which in turn caused the assassination of Park Chong-hee. The ultimate result of his death was the collapse of the ruling military dictatorship.

### 3. Righteous City of Art

In the early 1980s when people embraced the 'Spring of Democracy,' Kwangju citizens appealed for political freedom and the remodeling of the undemocratic social system. They protested in peaceful rallies and demonstrations like citizens of other cities. However, because of regional discrimination in the national government's policy-making, the economical development of Kwangju had been neglected to a greater degree than that of other areas. The city was still known not only as the "Home of Art" for its love of literature, arts, and music but also as the "righteous city" for its brave defensive uprisings in time of danger caused by external invasions. The citizens of Kwangju, who cherished the patriotic tradition such as Gabo Peasants' Revolution (1894),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March 1st (1919), and the Kwangju Students' Independence Movement (1929), stood up against the coup by the new military powers, headed by Gen. Chun Doo-hwan, in the May of 1980.

### 4. Lofty Victory

From May 14th to the 16th, students held a large meeting in front of the Provincial Capital Building to discuss the present political situation. As a group they decided to



take a "wait and see" approach to the new dictatorship's actions. The students agreed to meet there again if anything dramatic or unusual happened. On May 18th, the government proclaimed that martial law would be nationally enforced and ordered the temporary closing of all the schools. Three or four hundred students gathered in front of the school insisting to enter the University, but the paratroopers blockaded the students and other people in front of the Main Gate to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 the morning of May 18th, 1980. Despite the peaceful demonstration demanding the rescinding of the unnecessary martial law, the paratroopers cruelly suppressed the gathering by beating them with clubs and bayonets. These actions angered the citizens of Kwangju and escalated the peaceful demonstration into an increasingly violent situation. On May 21th, the army turn it guns on he citizens killing a lot of innocent young demonstrators. Angry citizens organized themselves into a Citizens' Army, arming

themselves with guns and swords and risking their lives. At last, the Citizens' Army succeeded in expelling the army from Kwangju and achieved a short heart-filled victory. On the dawn of May 27th, the Citizen's army took control of Kwangju. During the next six days, Kwangju was an ideal democratic republic; with peace, order and warm-heartedness. The citizens cleared the streets and elected new representatives who discussed and solved important matters with consensus. Kwangju was a democratic city where the spirit of communal living was realized.

## 5. Last Struggle

Refusing to surrender, Kwangju citizens struggled against the military power of the new ruling dictatorship to the end. The national army marched towards the Chonnam Provincial Capital Building armed with tanks on the dawn of May 27th. The Citizen's Army, comprised of some 500 citizens, fought bravely against them to protect their headquarters. An unknown number of citizens were killed in this last struggle and they are now buried in Mangwol Cemetery. The democratic ideals that this citizens army represented throughout the struggle were never defeated even though the overwhelmingly cruel national military force was ultimately victorious.

## 6. The City of Anti-Americanism

After the Uprising in May of 1980, Kwangju became the center of the anti-American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came about because of the widespread believe that the suppressive army and new dictatorship was possible only under the consent of the United States, for it was in charge of the strategic command of the Korean army. President Reagan also became the target of criticism from the Korean people for his allowing of Gen. Chun Doo-hwan to lead the military coup and then to violently suppress the May Uprising by force.

*Ruthless Paratroo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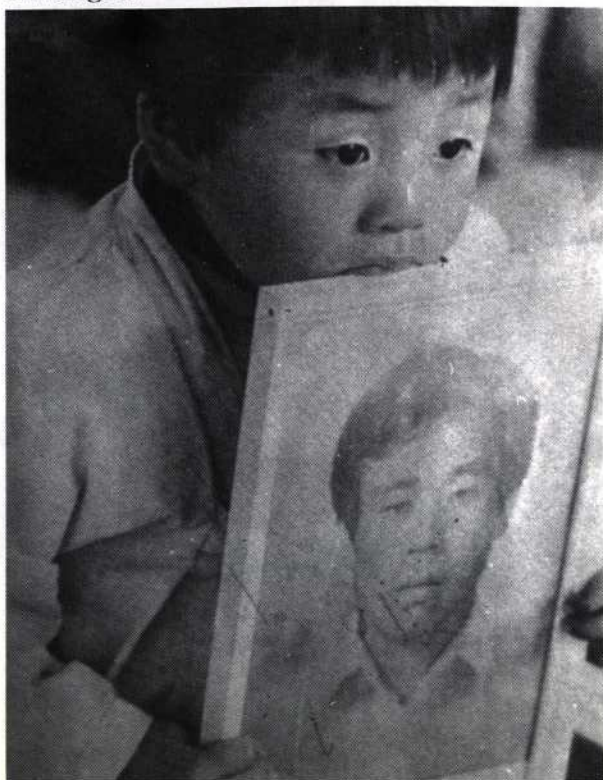
# The Mangwol Cemetery: *Mecca of Democracy*

## 1. Tombs of 130 Victims

Mangwol Cemetery, which commemorates the sacrifices of the May Kwangju Minjung Uprising, has the tombs of some 130 victims of the uprising. On May 29th, paratroopers brought 126 corpses in garbage trucks to a corner of the Kwangju Municipal Cemetery. The dead were falsely accused as "mobsters". Aside from the tombs of the citizen soldiers in the cemetery, there are the tombs of pregnant women,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nameless tombs for those who had gone "missing" during and after the uprising. The possibilities of secret burials and cremation have also been continually questioned but this silent cemetery only knows the cruelty of the suppressive army.

## 2. Military Regime's Attempt to the Graveyard That Failed

since May of 1980, Mangwol Cemetery has been the target of continuous pressure from the military regime that took power at the expense of citizens of Kwangju.



*An Innocent boy with a picture of his deceased father*

The victims' families could not even hold memorial services at the cemetery and many visitors were taken away by the police every time they tried to assemble. New organizations were also established (by the authorities) to deter the association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nd the injur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planned to move the graveyard of the victims to another location in order to attenuate the spirit of the May Uprising. In 1983, the victims' families were forced to, or coerced by money, to move the tombs. As a result, 26 tombs were relocated elsewhere. Despite all these attempts to close the cemetery, most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remained united and succeeded in protecting the graveyard in Mangwol Cemetery. It now attracts lots of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 3. Mecca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Mangwol Cemetery, there are also 31 additional bodies of those who sacrificed themselves or were victimiz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Many young men and women were sacrificed in the movement to clarify the truth of the Kwangju massacre, and others also perished in continuing anti-American or labor movements. Their families preferred to have them buried there in memory of their struggle and personal sacrifices. The burial of these victims, of the on going democratization movement proves that Mangwol Cemetery is an everlasting shrine of democracy that breathes dynamically with the history.

### 4. May, It is Not Finished Yet!

The political achievement of the Korean Minjung, or people, through the uprising in June of 1987 shed a warm light over the Mangwol Cemetery. The National Assembly opened a series of public hearings to clarify the truth of the Kwangju massacre. The sanctification of Mangwol Cemetery is under way,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ian government in 1992. Several civilian organizations have also initiated a movement to pile stones around the graveyard in Mangwol Cemetery to honor the buried and to forever enshrine the spirit of the May Uprising.

However, only a part of the commemorative project has been achieved. The truth of the uprising and the punishment of persons in charge of the massacre, which are the core parts of the project, show no progress even under the civilian, or non-military, government.

*Mangwol Cemetery covered with snow*

